

	성 명	충 남 도 당
2020년 03월 11일(수)	대변인 : 김 연(010-3355-4074) 담 당 : 김성서 정책부장(010-4903-2211)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9, 신부더샵 3층 / 041-569-1500		

천안시장 보궐선거를 진흙탕으로 만들려는 미래통합당을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천안시장 보궐선거 공천을 두고 미래통합당이 또다시 판죽을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어기구)은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를 진흙탕으로 만들려 하는 미래통합당의 일방적인 주장을 규탄하는 바다.

앞서 여러 차례 밝혔듯 구본영 전 천안시장의 전략공천은 당이 마련한 공정한 절차와 시스템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대법원 판결 뒤 더불어민주당은 천안시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과 함께 당의 모든 역량을 다해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다.

또 미래통합당은 2016년 당선된 박찬우 전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도낙마 한 뒤 치러진 2018년 보궐선거의 비용을 부담했는지 되묻고 싶다.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진행되는 아산시 가 선거구와 금산군 나 선거구의 선거 비용 또한 책임지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천안시장 쟁위라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난 뒤 미래통합당은 정쟁에만 몰두해왔다. 사태 수습이 아닌 정치혐오만 일으키는 발언만을 반복하며 자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모습만 보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

미래통합당은 겸허히 시민들의 선택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
주당 충남도당은 ‘네거티브 공세와 노이즈 마케팅을 중단하고 당원과 시
민들의 선택을 받은 한태선 후보와의 품격 있는 정책 대결’을 촉구한다.